<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 >

+ 평화를 빕니다!

전 세계적으로 집중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있는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교우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증(viral infectious disease)이란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인간의 몸 안에 침입하여 기관이나 조직에서 증식한 결과로 생기는 질병을 말하는데 이러한 감염을 원천봉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므로 신종이라는 말도 사족일뿐더러 예방접종도 일정 기간의 면역기능으로 감염 확률을 낮추는 것이며 감염될 경우의 치료란 대부분 증상에 대한 처치입니다.

일상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균과 바이러스 속에 누구나 노출되어 있으나 감염으로 인한 발병 여부는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면역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와 환자 등에 대한 각별한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감(毒感) 등 유행성 호흡기 질환이 횡행하는 때일수록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좀 더 관심있게 돌보아주며 적절한 운동과 양질의 식사와 김치같은 전통 발효식품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김미정 외, In vivo와 in vitro에서 김치가 혈액성상과 면역세포배양에 미치는 영향, 1997,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긴 모양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2015년에 유행하여 국내에서 38명이 사망했던 메르스(MERS)와 2003년에 발생 보고된 사스(SARS)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2020년 2월 6일 0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23명으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신속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조하여 감염경로 차단을 위한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nCov)으로 사망한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병고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기쁘고 감사할 때 다시 말해 높은 스트레스 상태가 아닐 때 면역력이 증강되는 구조이므로 전염 가능성에 대한 걱정과 공포를 내려놓고 감사와 평화를 일상에서 만들어가며, 병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는지 면밀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매스미디어의 보도는 분별력 있게 참고하되 지나친 두려움으로 위축되거나 동요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주교구 보건사목담당-